

Practitioner's Notes
통번역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
Round Table Discussion at the 5th GSTI International Conference

사회_최미경
발표자_조성현, 박찬순, 박혜경
정리_이지은

미디어 번역의 경제

최미경 박찬순 교수님께서서는 여러 해 동안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영어번역과 겸임 교수로 계시다가, 현재 서울여대 영문학과 번역 교수로 계십니다. 연세대학교 영문학과와 서울대 신문대학원을 나온 후 방송국 프로듀서로 일했고, 많은 영화를 번역했으며, 작가가 되셨습니다. 자기의 글을 간직하려고 노력하는 번역자 입장에서 창조자의 기미를 알아차리게 되어 작가 쪽으로 넘어가신 분입니다. 『발해풍의 정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단편서를 출간했는데 선생님을 개인적으로 모른다면 30대 초반 여성이 쓴 글이라고 생각할 만큼 놀라운 감수성과 깊이 있는 문체로 훌륭한 작품을 써 주셨습니다.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에서 미디어 번역 강의를 하시는데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번역의 원칙에 대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박찬순 미디어 번역 원칙을 저는 저 나름대로 전달과 표현의 미학,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라 봅니다. 영화,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 미디어 장르는 복수의 기호 체계를 지닌 텍스트입니다. 모든 작품이 문학, 음악, 미술, 무용, 건축과 같은 종합적인 예술의 총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번역자는 그 중에서 대사나 해설과 같은 언어 텍스트만을 번역하지만 언어 이외의 다른 기호 체계인 음악, 미술 등에 대한 소양을 갖추어야만 완성도 있는 번역

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읽기 공부가 필수적입니다. 또 미디어 텍스트의 특징은 문학 작품과 마찬가지로 표현적인 텍스트라는 점입니다. 표현적인 텍스트의 번역은 단순한 내용의 전달만으로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상황에 가장 알맞고 주인공의 체취가 우러나며, 뉘앙스와 리듬을 살리는 미학적인 성취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러한 심미적인 대사 구사를 위해서는 드라마 작가나 다름없는 언어 구사력을 갖고서 재표현을 해야 합니다.

최미경 선생님께서는 오랫동안 영화 번역 일을 하셨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의미 전달과 동시에 적절한, 그러면서도 경제적인 재표현을 구사하시나요?

박찬순 경제적 재표현이라는 말은 미디어 번역에서는 함축과 절제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미디어 번역은 매체와 장르에 따라 각각 다른 형식을 갖습니다. 지상파 TV는 주로 더빙으로, 케이블 TV와 위성 방송, 개봉관, 영화제 등에서는 자막으로 번역됩니다. 지상파 방송에서 사용되는 더빙 번역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더빙 번역의 특징이 립싱크입니다. 먼저 영상과 대본을 보며 대사의 호흡을 끊어놓은 뒤에 원문과 번역된 대사의 길이를 하나하나 일치시키고, 뉘앙스와 제스처, 리듬까지도 서로 배치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작업을 통해 영화 속의 외국인 배우가 우리말을 자연스럽게 구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뜻풀이를 하고 난 뒤에도 계속 맞춰 보면서 가장 적절한 표현을 찾아야만 합니다. 대개의 경우 번역을 해놓으면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입길이에 맞도록 줄여나가게 되는데 여기서 함축과 절제의 미덕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것은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는 고된 작업입니다. 그래서 영상 번역 작가들은 나름대로 ‘외국인 배우에게 우리말 가르치기,’ 또는 ‘순간적으로 흘러가는 영상에 우리말로 혼을 불어넣기,’ ‘외국 배우들과의 짜릿한 입맞춤’ 이런 말로 자신들의 작업을 표현하며 위안을 삼습니다. 제 기억에 제일 힘들었던 것은 <해리가 샬리를 만났을 때> 더빙 번역할 때였는데 맥라이언이 말이 빠르기ro 유명하잖아요, 밤새도록 작업해서 보름 이상을 번역했습니다. 성우들이 못 따라갈까봐 너무 고심하면서 가지치기를 해서 맥라이언이 통통 튀면서 말을 빨리 하는 게 매력인데 대사가 모자라는 대목이 생겼습니다. 나중에 집에 와서 보니까 성우가 말을 조금 보태지 않아 대사가 너무 빨리 끝나버리고 입만 달싹였습니다. 영어를 다 우리말로 번역해 놓으면

길이가 세 배 정도 되므로 여기서 함축과 절제의 미덕을 발휘해야 하는데 자꾸 줄여나가면서도 맞춰 보고 해야 하는, 그래서 너무나 힘든 작업입니다. 그렇지만 외국 배우들과의 짜릿한 입맞춤에 위안을 삼고, 낮은 번역료에도 불구하고 더빙 번역을 오래 했고, 손을 놓지 못하고 계속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이유가 아마도 거기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막 번역의 경우 한 화면에 띄울 수 있는 글자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TV용 자막은 한 줄에 10자에서 12자로 두 줄까지, 영화제용은 10자까지, 개봉관용은 세로 자막인 경우 7, 8자, 가로 자막인 경우 10자까지 가능합니다. TV용과 개봉관용은 번역자 자신이 대사에 번호를 매기고 끊어가면서 번역하는데 이것을 스포팅(spottng)이라고 합니다. 번역 작가에 따라 자막의 개수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대사의 흐름에 따라 관객이 읽기 편하게 스포팅이 되어 영상을 감상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자막입니다.

번역할 때 가이드라인이라면 지상파 TV방송용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더빙이든 자막이든 공공성이 강조된다는 점입니다. 할리우드 영화의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대사는 적절히 순화되고 완화되지 않으면 심의에서 지적을 받는데 그렇다고 지나치게 순화시키면 너무 재미가 없어지므로 심의를 아슬아슬하게 통과하도록 수위를 조절해야 합니다. 특히 TV 외화 번역 작가들에게 허용되는 욕은 고작 ‘빌어먹을,’ ‘망할,’ ‘젠장’과 같은 몇 가지 단어뿐입니다.

개봉관용 자막 번역은 관객이 돈을 내고 보는 영화라는 점 때문에 상업적이 되기 쉽습니다. 공공성에 대한 고민보다는 자극적이고 유머러스한 대사를 구사해 웃음을 유발시켜야 한다는 압박감이 큼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영화사나 번역 작가 모두 고민과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제용 번역은 전문 영화인들이나 마니아층이 많이 찾는다는 점에서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 요구됩니다.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이해하기 쉬우며 맛깔스런 표현을 해야 한다는 점은 다른 번역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영화로 철학을 하는 예술 영화들이 많기 때문에 번역을 할 때 상당한 스테디가 필요합니다. 번역자가 충분히 이해해야만 어려운 예술 영화를 제대로 번역해서 관객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번역학과 졸업생들이 부산, 전주, 충무로영화제 등에서 당당하게 시험에 합격해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영화 번역의 체험을 젊은 친구들에게 나누는 것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미경 번역할 때 꼼꼼한 자료 수집을 한 후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방대한 배경 지식, 문화 지식의 섭렵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박찬순 배경 지식과 문화 지식의 섭렵은 모든 번역 작가에게 무거운 과제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세계에 대한 즐거운 지적 호기심이기도 하죠. 이것은 아마도 번역 작가가 운명적으로 갖고 있는 태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끝없이 공부하고 싶은 지적인 욕구가 있기에 번역 작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번역하려면 몇 권의 책을 읽고, 인터넷을 뒤져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단지 즐겁게 책읽기와 탐구를 계속할 뿐입니다. 제 소설집에 번역가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소설이 네 편이나 들어 있는데 그것은 필자의 체험이어서 자연스럽게 들어온 것이기도 하지만 번역가란 원래 경계인으로서 두 문화 사이에서 고뇌하는, 너무나 지적이고 사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쪽과 저쪽을 연결하는 사람, 두 문화 사이에 다리를 놓고 융합시켜 새로운 지평을 여는 사람입니다. 타슈켄트의 온돌 체험방에서 한국인 남자에게 터번을 감아주는 고려인 아가씨의 모습은 우리 문화 속에 여러 이국적인 요소를 끌어안는 포용성과 다문화적인 가치를 상징합니다. 타슈켄트의 고려인이라면 북한에서 연해주를 거쳐 중앙아시아에 강제 이주된 우리 선조의 후손입니다. 러시아의 사회주의,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문화, 우즈벡 민족주의 등을 겪은 고려인은 또한 우리의 문화적인 자산이라는 뜻도 됩니다.

경제적 대표현의 한계를 극복하는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없는 영원한 과제입니다. 문학 작품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의 작품을 많이 접하면서 언어 감각을 단련시키는 도리밖에는 없습니다. 영상 번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3단계 방식을 쓰면 도움이 됩니다. 1단계는 정서적인 대응으로서 가슴으로 그 대사를 느껴보는 것입니다. 주인공의 심정이 되어보는 일입니다. 2단계는 논리적인 대응으로 지성적으로 상황을 따져봅니다. 3단계에 가서 1단계, 2단계를 바탕으로 판단을 하고 대사를 취사 선택합니다.

그렇게 해도 미흡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스럽죠. 문학평론가 김현은 작가는 언어의 성감대를 끌어내는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통역사나 번역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이 『번역가의 과제』에서 말했듯이 “번역은 언어에 대한 영원한 동경”이기 때문입니다. 번역 작가는 잠잘 때조차도 단어 하나 토씨 하나로 고민합니다. 대표현의 능력이 모자라 허덕일 때면 프랑스의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

(Marcel Proust)를 떠올립니다. 그는 번역하는 행위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소설을 쓰기 시작하면서는 “이제부터는 내 영혼을 번역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칠세라, 잘못될세라 애무하는 손으로 누군가의 영혼을 어루만지려고 노력 하는데 거기서 뭔가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커뮤니티 통역의 코드

최미경 조성현 수화 통역사님께서는 다른 이들과 소통하고 봉사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수화 통역을 배워 통역사가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다른 음성 언어 통역사보다 늦게 B언어를 배우신 셈이죠.

조성현 오늘 세미나에서 수화 통역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연구와 체계화가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시다. 수화 통역사가 제도화된 지는 이제 약 1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 민간 자격 수화 통역사가 약 700명, 국가 공인 수화 통역사가 약 840명 정도고, 이 중 중복 인원을 빼면 현재 약 1,100여 명의 수화 통역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직 수화통역사협회도 설립되어 있지 않다 보니 수화 통역사의 자격 관리와 교육, 수화 통역의 의뢰부터 준비 과정, 통역 방법 등이 체계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때문에 수화 통역사들에 대한 대우라든지, 인식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직 수화에 대해 언어라는 개념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배우고, 사용하게 되는 모국어가 되는 셈이고 저에겐 제2언어인 셈이죠.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수화 방송이 나가야 하는데 많은 분이 통역의 필요성을 이야기할 때 자막 방송이 많이 나가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자막 방송은 청인의 언어이지 청각장애인들의 언어는 아닌 것입니다. 청각장애인들이 한국에서 태어나 한글을 배우긴 하지만 그들에게는 제2의 언어이며, 수화 언어 문법과 우리 국어 문법과는 차이가 있어서 청각장애인의 독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각장애 학생의 글쓰기 정도가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입니다. 잠시 수화라는 언어의 문법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수화는 품사, 조사가 없으며, 도치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청각장애인들에게 한글을 쓰라고 하면 한글을 수화 문법대로 풀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이 보낸 문자를 보면 무슨 말인지 읽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수화 통역사에게 보여 주고 그 문장을 그대로 수화 통역을 하면 그제서야 이해가 가능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의 언어를 통역하는 수화 통역사들이 하는 일은 여러분과 그다지 많이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인의 음성 언어를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화로 전달하거나 수화를 음성으로 청인에게 전달하는 과정인데요, 여러분의 언어 통역과 조금 다른 점은 언어 통역은 단지 문장이나 글을 그대로 옮겨 다른 언어로 치환해서 전달해 주지만 수화 통역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내 손을 통해 언어를 전달되는 것은 50퍼센트밖에 안 됩니다(지화와 수화 합쳐서 50퍼센트). 나머지 50퍼센트는 얼굴 표정과 몸을 통해 전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는 행복한 표정을 지어야 합니다. 인상을 쓰며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한다면 청각장애인들 입장에서 볼 때 제 얼굴 표정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수화를 잘 몰라서 틀리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화 통역은 단순히 청각장애인과 청인 사이의 언어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외국 청각장애인이 있는 경우, 또는 외국인과 만났을 때 내국인 청각장애인이 있는 경우, 외국인 청각장애인과 내국인 청각장애인과 사이에서의 통역에서도 여러분과 같은 언어 통역사와 함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때는 각국의 언어 통역사, 각국의 수화 통역사가 함께 하게 되는 거죠. 이럴 경우 언어 통역사와 수화 통역사를 거치는 동안 통역사의 자의 해석이나 문화 차이에서 통역 내용이 왜곡되거나 잘못 통역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청각장애인이 있는 경우 통역 부스의 언어 통역사가 외국어를 한국말로 바꿔 주는 것을 듣고 수화 통역을 해야 하는 거죠.

최미경 제가 공부했던 프랑스 파리 통역대학원에서 수화 언어를 중요시하는 이유 중 하나는 커뮤니티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통역사를 양성해야 하기도 하지만, 파리 학파의 이론을 가장 잘 보여 주는 분야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 언어에서 또 한 언어로 넘어가는 과정에선 사전을 찾아가며 통역 번역을 하지만 단어에서 단어만으로 못하고 단어를 잘 이해하고 뜻을 잘 이해하고, 머릿속에 개념을 형상화한 후에 도착어로 자연스럽게 전달하면 좋다고 하는데, 전문 용어로 하면 이 과정이 ‘탈언어화’입니다. 파리 학파에서는 수화가 이 점을 가장 잘 구현해 준다는 입장인데 조 선생님께서는 그런 원칙을 적용하며 수화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조성현 통역에서 출발어를 도착어로 변환하는 과정이 수화에서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제 예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어에는 형용사가 굉장히 휘황찬란합니다. 통번역을 할 때 힘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요. 수화에서도 단순히 ‘좋다’와 ‘아주 좋다.’ 비교급과 최상급 차이도 굉장히 큼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청각장애인들은 시각적인 언어, 보여 주는 언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불타는 사랑,’ ‘뜨겁게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의미상 ‘뜨겁다’ 혹은 ‘불타오르다’는 수화를 보여 주고, 뒤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사랑하다가 타 죽었나, 뜨거운 사랑이라고 하면 뜨거운 방바닥에서 사랑을 나누고 있나 이런 식으로 들리죠. 그대로 전달할 경우 청각장애인에겐 오해의 소지가 커서 도착어로 ‘정말 사랑한다,’ ‘매우 사랑한다’와 같이 직접적인 표현을 써야지, 은유적으로 돌려서 표현하면 커다란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말을 해도 표정에 따라 다른 의미를 뜻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잘 먹고 잘살아라’라는 표현을 두 명이 같은 수화를 했는데 얼굴 표정에서 달리 하면 완전히 반대적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최미경 수화 통역사도 교대하면서 통역하는 외국어 통역사의 근무 환경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요즘 월드컵 시즌이라 축구 경기도 많고 뉴스도 많은데 통역하실 때 애로 사항이 많겠습니까.

조성현 수화 통역사들의 환경도 언어 통역사 환경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삼십 분에 한 번씩 교대하는 교대 방법 자체도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방송 같은 경우는 이삼십 분에 한 번씩 교대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한 사람이 단독으로 통역하고 있습니다. 수화 통역사에게 손과 얼굴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365일 검정색 계통의 옷을 입습니다. 여성 수화 통역사 같은 경우엔 머리는 뒤로 묶는 등 단정하게 하고, 립스틱, 매니큐어, 반지 목걸이 등도 착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출발어와 도착어의 차이로 인한 통역상 애로점은 예를 들어 법정 통역의 경우 ‘살인’이란 단어를 수화로 그대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수화에서는 살인의 구체적인 방법에 따른 표현을 그대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죠. 즉, 살인의 종류, 교살, 총살, 흉기에 의한 살인 등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 의사소통이 이뤄지기 때문에 통역사가 추가로 물어봐야 정확한 통역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신조어도 수화 통역사에게 도전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월드컵 기간이라 월드컵 얘기를 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대회 이전에는 ‘월드컵’이라는 수화를 사용하지 않았고, FTA 체결 이전엔 FTA라는 수화 단어도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류 독감 사스도 일반인들이 모르던 단어였습니다. 수화 통역의 경우는 사스가 아니라 ‘S-A-R-S’ 이런 식으로 단어를 하나씩 분리해서 통역해야 합니다. 새로 나온 신조어나 고유명사일 경우 이렇게 한글의 자모음을 연결해서 지화로 표현하죠. 월드컵의 경우 ‘ㅇ.ㄱ.ㄱ.ㄹ.ㄷ.ㅡ.ㅋ.ㄱ.ㅂ.’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하는데 자음 모음 하나씩 천천히 보이다 보면 방송의 경우 너무 길어져서 통역을 하기가 어렵죠. 월드컵 같은 신조어의 경우는 청각장애인 사회에서 새로운 수화가 즉시 만들어지고 사용하게 된 예입니다. 누가 손으로 컵을 만들어 ‘월드컵’을 간단하게 표현했는데 2002년 월드컵 기간에 널리 퍼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일반 언어의 특성과 같이 새로운 신조어가 생겨나면 예전에 쓰던 단어가 자연스럽게 소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듯이 수화도 다른데 ‘사랑’이라는 단어를 비교할 때 우리나라에선 엄마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모습을 기초로 수화가 만들어졌지만 서양 문화에서는 포옹 문화에서 수화가 만들어진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문화 차이로 인한 오해와 충격이 있기도 합니다. 서양에서 가장 심한 욕으로 표현하는 손동작이 한국에서 수화로 표현하면 손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표현하는 것이 되기도 하고, 한국에서 손가락으로 표현하는 욕은 영어 수화로 ‘try (노력하다)’가 됩니다. 수화라는 것이 각자 나라의 문화의 표현이고, 언어이기에 수화통역사들은 웃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죠.

또 어떤 청각장애인은 ‘수줍다’라는 표현만 써서 ‘부끄럽다,’ ‘창피하다’ 세 가지를 이것 하나로만 하고, 어떤 청각장애인은 ‘부끄럽다’ 하나로만 씁니다. 그런데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수줍다’라는 것은 예전에 한복 옷고름 잡고 고개를 돌리는 동작이고, ‘부끄럽다’는 수화는 손가락을 밑에서 이렇게 해서 올립니다. 빨강다라는 색깔을 나타내는데 부끄러워서 빨간색이 얼굴로 올라오는 거죠. 창피하다는 동그랗게 뺨에 대는 건데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치에 따라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잘못하면 큰일납니다. 그런데 어떤 청각장애인은 세 가지 동작의 의미가 다 다른데 하나로 표현하기 때문에 수화 통역사들은 그 수화를 보고 수줍음인지 부끄러움인지 상황을 잘 파악하고 음성으로 표현해 줘야 하는데, 수화 통역사들조차 의미 차이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후배들에게 국어 공부 열심히 하라고 권할 때 이런 예를 듭니다.

의전 통역에서 재표현

최미경 박혜경 교수님은 통역 횟수가 1,800여 회나 되는 베테랑 통역사로 릴레이를 받아 통역할 때 워낙 통역 같지 않게 통역해 주시기 때문에 다른 통역사들은 박 선생님 통역을 받아서 통역하기를 바랄 정도입니다. 놀라운 실력의 통역사답게 고 김대중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전 고이즈미 총리 등등 정말 유명한 정치인 통역을 많이 하였고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서 아주 선호하는 일어 통역사로 유명하십니다. 얼마 전엔 거의 5년에 걸친 각고의 노력 끝에 통역사를 위한 좋은 사전을 만드셨습니다. 의전 통역을 많이 하시는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 특히 일어 같은 경우에는 한자를 저희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한자를 알고 있기 때문에 통역사의 표현에 대해 원문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한일 과거사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중요한 정치인을 모시게 되면 항상 어떤 수위의 사과를 하느냐에 참여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그런 표현들을 처리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까지 무난히 잘 하고 계시는지 비결이 참 궁금합니다

박혜경 한일 간의 의전 통역에서는 가장 민감한 사안이 과거사 문제에 대한 표현이라던가 호칭 명칭입니다. 의전 통역하면 일단 정상 대 정상, 정상 대 정상, 정상 대 단체, 국회의원단체나 경제인단체 간의 의전 통역을 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인단체에서는 그렇게 호칭이나 명칭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정상 대 정상일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독도를 어떻게 말할 건가, 한반도, 북한, 동해, 일왕의 호칭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의 같은 경우에도 국가명 순서를 한일로 할 것인가, 한중일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고, 과거사 문제가 나왔을 때 사과냐 사죄냐 통절이냐 등등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언론에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보기 때문에, 통역사에게는 정신적인 압박감이 굉장히 큼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담을 안 가져도 될 것이 대통령에 따라 관계자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해도 사전에 청와대 관계자나 외통부 관계자들과 수위 조절을 하고 일종의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역할 때 과거에는 ‘독도’라고 한국어를 사용했는데 한동안 독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일본 사람들이 독도에 대한 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통역할 때 독도라고 하고 이어서 일본어로 다케시마라고 하는데 한국 국가원수의 말을 통역할 때 어

편 일이 있어도 일본명 다케시마라고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독도라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반도의 경우는 일본에서는 ‘조선반도’라고 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일반 회의 때는 한반도, 조선반도와 같이 섞어서 통역하지만, 정상회담 때에는 무조건 한반도, 북한도 무조건 북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천왕에 대해 표현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많은 협의를 거칩니다. 일반 회의에서는 도착어 중심으로 ‘일한 양국,’ 또는 일본에서 할 때는 ‘한일 양국’으로 도착어 중심으로 해도 무난하게 넘어갑니다. 한 20년 전에는 이것도 민감했는데 요새는 이를 가지고 문제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국가원수가 발언한 경우는 ‘한일’은 일본어로도 ‘한일’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중일’이라고 하는데 지난 5월에 있었던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는 문제가 되어서 주최국, 차기 연도 주최국, 그 다음에 차차기 연도 주최국 순으로 부르기로 합의했고, 그에 따라 다음 정상회의가 일본에서 열리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는 한일중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통번역대학원 출신들이 외통부 사무관으로 발탁되어 정상 통역을 전담하게 된 것은 정말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상 대 국회의원, 정상 대 경제인그룹 회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호칭이나 명칭 문제에 관해서는 부담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최미경 그런 어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의견 통역할 때 어려운 것 하나는 일상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들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학생들을 위해 말씀해 주세요.

박혜경 일본어로 통역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경어 사용입니다. 워낙 경어가 발달되어 있고 공식석상에서의 말투가 한국어에 비해 일본어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석과 공식에서의 여러 가지 표현이라든가 경어가 차이가 많이 나서, 통역 수업 때 가장 많이 신경쓰는 부분 중 하나가 TPO에 맞는 경어 사용입니다.

사회자 및 발표자 약력

최미경 이화여대 교수, 국제회의 통역사

소르본대학 불문학 박사

불역서: 고양이에게, 열녀춘향수절가, 삼포가는 길, 손님, 식물들의 사생활 등 다수

조성현 수화 통역사

민간 수화 통역사 6기, 국가공인 수화 통역사 1기(보건복지부 2006-317)

15, 16, 17, 18대 대통령 선거 및 이취임식, 총선, 지방선거 방송 통역

현 KBS 5뉴스, 일요뉴스타임 프리랜서 수화 통역사(1993.7.~현재)

박찬순 서울여대 교수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 석사

MBC PD, 이화여대 강사 역임

저서: 발해풍의 정원, 그때 번역이 내게로 왔다 등

박혜경 이화여대 교수

関西学院大学 문학연구과 박사과정

한일 정상회담을 비롯한 국제회의 약 1,800회

저서: 국제회의의 통역 노트, 한일 전문용어 사전 등